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

# 전주서 즐기는 가장 한국적인 설

전주시, 6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시설 15개소 개방  
설 당일에도 경기전·역사박물관은 휴무 없이 관람객 맞이

설 명절을 맞아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풍성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 시민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만의 품격을 보여주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공연과, 문화장터,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먼저,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기획전시 '관소리 다섯마당 수궁가'와 상설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가 펼쳐진다. 또,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민속놀이 한마당과 무료 풍물고실이 진행되며, 2월 3일 오후2시에는 '복나라 푼떡'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 귀성객의 눈과 귀가 즐거운 풍성한 설 연휴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은 설 당일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기간 휴무 없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주지역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설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전통문화연수원과 완판본문화관 등에서는 △고택관람 △상설전시 '이야기 새기는 완판본 책방' △목판인쇄 체험 △옛 책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전통술박물관은 △모주거르기체험 △유상곡수연 풍류 체험 △소주거르기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명희문화관에서는 '꿀꿀~「혼불」과 함께하는 새해맞이'를 주제로 △길경관우 생각수첩 만들기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부채문화관은 △겨울바람 부채 소장품 선별전 △아워전시

'우리 그림 속 부채' △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주문화관과 한문화관, 전주음식테마존을 무료 개방하고, △'기움 福술 福술 설맞이!!' 전통공예 체험 △시부방 설맞이 과일품은 福떡 만들기 △아트 한지 뜨기 △한지등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밖에, 설 당일에도 문을 여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설 특선영화가 상영되고, 옷놀이와 투호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일본·중국의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또, 한옥마을 역사관에서는 '한옥마을 형성과 변천과정 전시', 민속놀이의 함께 2월 2일 토요일에는 버

블마술 공연 행사가 진행된다.

또, 2월 2일~2월 5일 기간동안 매일 1회씩,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즐기고, 흥을 북돋을 수 있는 풍물마당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에는 문화시설 관람객들이 기획전시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설 연휴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설 연휴 동안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전주에서 우리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연휴 기간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과 관광안내소, 경기전 등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설 명절 가볼만한 곳

###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힐링 하세요”

선운사 설날특별 템플스테이 · 상하농원 설맞이 대잔치 등 '풍성'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번 설 연휴, 일정을 잘 조절해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 고창은 바다, 강, 산, 들, 갯벌이 모두 있어 맞춤형 힐링 여행의 최적지로 꼽힌다.

올 설 연휴 고창군 곳곳에선 풍성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천년고찰 '선운사'에서 4~5일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옷놀이, 스님과 대화, 타종체험, 천마봉 산행, 해맞이, 소원풍선 날리기, 소원지 쓰기, 108염주 만들기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는 농촌형 테마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하농원'에서도 특별한 설날 행사가 열린다. 상하농원은 오늘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에 돼지띠(1947년생, 1959년생, 1971년생, 1983년생, 1995년



생, 2007년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또 상하농원에서 한복 입은 돼지를 찾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숙박권도 선물한다. 이밖에 선운사는 설 당일에 주차료가 무료고, 고창읍성을 비롯해 고인돌박물관과 관소리박물관은 2, 3, 6일 무료입장(4~5일 휴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설 연휴동안 펼쳐지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다양한 문화 행사 나들이를 통해 가족의 정에 문화를 더해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다양하고 재미있는 전시·생태체험 '가득'

전주자연생태관이 설 연휴를 맞아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내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가족단위 시민과 한옥마을 관광객이 생태도시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별 전시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이번 연휴기간동안 설 당일에만 문을 닫는다.

이번 설 연휴기간 자연생태관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미니돼지 체험관을 운영하며, 대형육지거북과 세계희귀곤충 디오라마를 전시한다. 또,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과 가족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먼저, 자연생태관 1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미니돼지 체험관과 대형육지거북이 전시된다. 또, 관람객들은 먹이주기를 통해 다양한 생물의 습성을 관찰할 수 있고,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도 체험할 수 있다.

자연생태관 2층에서는 세계희귀곤충 디오라

마와 타란툴라거미 등 다양한 전시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포토존에서는 전주천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선택해 좋은 추억을 남겨갈 수 있다. 반딧불이 정원에서는 꿈꾸니에서 반짝 반짝 빛을 내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에픽 숲속의 전설 △마이펫의 이중생활 △코렐라인 비밀의 문 △성기작영화 4편을 매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상영할 예정이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전주자연생태관을 찾은 시민과 귀성객이 특별전시를 통해 다양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토요일생태교실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홈페이지(ecomuseum.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